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6호 [주제 제25419호] 주제 105 (2016)년 10월 2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온 나라 선군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세시한 사회주의문명 강국건설의 용대한 목표를 향하여 흥매진해나가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영광스럽고 주체파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자랑높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70돐을 맞길 기쁘게 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창립후 오늘에 이르는 70년의 창구한 기간 명실공히 창립자, 전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학으로서의 영예를 떨치며 혁명인재 육성의 본보기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광성강화되며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어 맛였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향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궁지높은 역사와 전통을 세대와 세기로 이어 빛내여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9월 30일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에는 김정은동지의 교육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이 땅우에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고등교육과 인재 강국건설의 새 역사를 멀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파세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으로 빛내여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회같은 신뢰심이 굽이치고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의 려명이 밟아오는 성지로 빛을 뿌리는 봉남산지구를 형상화 주제단배경에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이라는 글방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교육중시사상을 둘러 달고 놓고보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자!》,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끌임없이 개선해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출입생들, 당, 청원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평양시찰의 대학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 흥현조선대학교대교단과 해외동포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류학생, 연구생, 실습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김영남봉지, 박봉주봉지, 김기남봉지,

최태봉봉지, 김수길봉지, 조연준봉지와 김승우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회민 청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대학의 공로있는 일군들과 교직원, 모범적인 학생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기남봉지,

최태봉봉지, 김수길봉지, 조연준봉지와 김

승우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회민 청양시인

민위원회 위원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대학의 공로있는 일군들과 교직

원, 모범적인 학생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통교육상

태령장을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계망, 청준,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평화로운 승리의 진로를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할

것에 그동적인 시기에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을 뜻깊게 기념

하고 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이날은 맞는 대학의 전제 교직원, 학생들

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이 땅우에 인민

의 첫 대학을 일떠세워주시여 주체적 고등

교육건설의 위대한 새 역사로

창조하신

백두산질세워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드롭게 되새겨보며 당의 병도 따라

김일성종합대학을 영원히 존엄높은 수령의

기원을 열어놓을 역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립후

무려 107차례나 대학을 찾이주시고 900

대학, 세계일류대학으로 더욱 빛내어나갈 불리는 경의에 넘쳐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영광스러운 70년 역사는 배우산질세워인들의 품속에서 주체교육과 과학의 최고전당으로 강화발전되어 온 자랑스러운 행로이라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대학의 창립자이시며 대학을 주체조선의 국보로, 민족의 자랑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설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찌기 조선혁명의 절도를 개척하시면 그때 벌써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고등교육

건설의 원래 한 구상을 무로익혀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건국의 첫 시기부터 여러 부문의 대학들의 모체로 꼭 종합대학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헌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소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참호무성한 풍남산

이승길을 맑으시며 종합대학의 티켓을

잡아주시고 세 조선건설의 어려운 조건

에서도 대학교사를 훌륭히 일파세워주시

었다.

학생선발로부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

의 물질기술적도를 갖추는 문제들을 이

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물소 위촉

장을 보내시여 우수한 교육전영도 꾸려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병도에

의하여 주제 35(1946)년 10월 1일 반만년

민족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되게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은 위대한 수령님

의 주체적인 교육중시, 인재 중시사상의 빛

나는 결실이었으며 이 땅에 인민적인 고등

교육과 인재 강국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

은 역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립후

무려 107차례나 대학을 찾이주시고 900

여자의 강령적인 교리를 주시면서 종합대학이 인민의 대학, 혁명의 대학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걸음을걸어 이끌어주시었다.

대학교실에서 새 조선을 떠나갈 민족간부들을 기워내는 인민의 대학으로서의 종합대학의 성격과 사명을 뚜렷이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걸음을 메

대학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주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관계하는 전화의 나날에도 불비

속을 헤치시며 몸소 맥총리를 찾으시여 전

시조간에 맞게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 가르침을 주시고

대학이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방향과 방

도를 원만히 수령하여 올수 있게 한 지향으로 되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일성종합대학을 수령의 대학, 당의 대학

으로 빛내어주신 학교를 빛나고 바다

눈을 세계를 보라! 숨고한 정신과

풀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밑을

직진이 되라! 문발하고 또 문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

러리보게 하라!』는 세계를 향하여 길을

노도적 내달리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영원한 표대로 빛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70년 역사의 갑피칼미

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

보다 깊은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일찌기 어머님과 함께 교육선진장을

찾으신 그때로부터 광장 수십년간 종합

대학에 특별한 정을 기울이시며 대학촌

을 옹근 하나의 선물관으로 전변시켜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세상사람들이 부리워하

는 최상급의 수영관과 전자도서관을 선

물로 얹겨주시었으며 물에도 오시고 가

울에도 거울에도 오시여 교직원, 학생들

의 행복년 친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

시며 종합대학의 밝은 미래를 뜨겁게 축

복해주시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을 정중히 모시고 풍남산지구를 당의 유일

사상교양의 거점, 배두산질세워인들의 교

육중시, 인재 중시사상과 업적의 융성되어

있는 혁명사적지로 완전무결하게 꾸리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대학안에

갖게 현대적인 새 교직들과 과학도서관,

자연박물관, 체육관을 용장하게 일떠세워

주시여 풍남산지구를 하나의 대학촌으로

변모시켰다.

당과 국가의 전선사업을 병도화하는 그

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깊은 밤, 이른새벽에

도 대학에 찾아오시여 학생들의 학습과 생

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들보아주시고 학교직원들의 건강을 넓여 하시어 특별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시었으며 용당 할 일을 한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에게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에도 안겨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밀을과 사랑은 김일성종합대학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 올수 있게 한 지향으로 되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종합대학을 수령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 빛내어주신 학교를 빛나고 바다

눈을 세계를 보라! 숨고한 정신과

풀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밑을

직진이 되라! 문발하고 또 문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리보게 하라!

김일성종합대학 70돐기념 중앙보고대회는 혁명한

5대교양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자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실속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상공세의 포성으로 충정의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견뎌 당조직들의 사상 사업진행성형을 정상적으로 통화하고 있다.

지금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을 비롯한 5대교양을 방방본문에 있어 하여 충정의 200일전투에서도 날에날마다 기적적인

사상공세의 포성은

무슨 일에서나 시작을 아예 떼는가에 따라 승과 좌우된다. 해주시당위원회가 전쟁한 사상사업과 최근에 이룩한 성과를 놓고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충정의 200일전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절한 즉시 해주시에서는 대단하게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농업부문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목표, 이동식 그물우리 양어장건설, 산림복구를 위한 모체양보, 창진설, 계방공사, 해주식료공장을 비롯한 지방간공장들의 현대화공사...

도적으로 진행되는 전설과제를 수행하면서 시자체로 어떤 방대한 목표를 수행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번 전투경축에서 시장위원회에서는 200일전투의 첫 걸음을 잘 냈다.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시장위원회의 편파를 일으키는것으로부터 200일전투의 시작을 알리었다.

시안의 선전선동력강화 수단

들의 출동모임을 조직하고 그

황해남도 안의 당조직들의 사업을 놓고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 부터 당조직에서는 도안의 시, 군들에서 이룩한 성과와 함께 당조직들의 사상 사업진행성형을 정상적으로 통화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충북보임들에서 평가되었고,

제국의 200일전투에서 평가된 일부를 전한다.

위대성교양으로부터

길로 시장위원회군들은 물론 시안의 모든 당초금선전련군들을 전투현장과 주민들에 대해 사상사업과 최근에 이룩한 성과를 놓고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충정의 200일전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절한 즉시 해주시에서는 대단하게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농업부문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목표, 이동식 그물우리 양어장건설, 산림복구를 위한 모체양보, 창진설, 계방공사, 해주식료공장을 비롯한 지방간공장들의 현대화공사...

도적으로 진행되는 전설과제를 수행하면서 시자체로 어떤 방대한 목표를 수행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번 전투경축에서 시장위원회에서는 200일전투의 첫 걸음을 잘 냈다.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시장위원회의 편파를 일으키는것으로부터 200일전투의 시작을 알리었다.

시안의 선전선동력강화 수단

들의 출동모임을 조직하고 그

빠스가 달리는데 시민들 대다 수가 이 빠스를 이용하여 전투현장에서 행운을 하도록 적극

미밀어 주었다. 그리하여 매일 아침부터 온 시가 위대성선전으로, 경제선동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높은 성과로 이어져 20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서둘렀고 놓았는데 평화로운 사이에

며 충족실리를 갖추게 하고 수십집의 위대성선전을 만들

어 선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령도업적단위 참관사업과 과학농사열풍

였다.

청단군당위원회가 사상사업을 조직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성적인 것은 평도업적을 통한 체계적인 위대성

경과는 좋았다. 활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모든 농경의 당조직에서는 자기 단위의 특성

교양을 살피하여 농민에게 떨리고 있는 것

이다.

청단군에서는 당 제 7 차례 회가 열린 뜻깊은 운행을 더 높은 일과 증산으로 및 내일 대 달한 목표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시장위원회에서는 당 제 7 차례 회가 열린 뜻깊은 운행을 더 높은 일과 증산으로 및 내일 대 달한 목표를 내세웠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당시 행정

체계적인 것들이 있는 농장들이 많았던 군의 특성에 맞게 일의 농장을 선정하고 활관을 조직

하는 사업을 자주 진행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지난 시기 평도업적을

맞이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공로자들도 내세워 위대성

선전을 진행하니 실효는 더욱

컸다.

또는 농경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늘 자기 단위에 깃든 평도업적은 물론 농업부문에 주신 위대성선전을 보여주며

하는 가를 직접 보여주자는 것이

온 시에 충정의 200일전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상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장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위대성선전을 더욱 심화시켰다.

시민들이 리용하고 있는 로선

빠스에서 진행하는 위대성선전 활동을 보자.

시에는 3개 방향으로 로선

잘 알고 그 관찰을 위한 사업에 한 사람 같이 멀쳐나서게 되었다.

이처럼 멀도적 단위들에 대한 한 관찰사업은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선전을 더욱 깊이 세우고자 하였으며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게 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높은 성과로 이어져 20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서둘렀고 놓았는데 평화로운 사이에

며 충족실리를 갖추게 하고 수십집의 위대성선전을 만들

어 선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대성교양으로부터

의 첫 표성을 올리고 그 위력을

계속 립여제 파악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이런 사업

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제국의 200일전투에서 일어난

현대화는 당조직들의

위대성선전을 확장하는

《아바이, 그새 건강하셨습니까.》
《애국자아바이가 우리 군단에 찾아오신걸 보니 또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가 봅니다.》

누구나 인사를 했다. 하지만 인사를 받는 모인은 채서인지 믿고하고 송구한 기색으로 물었다. 봉천군에서 20여년간이나 술을 가꾸어온 70고령의 조용운 모인이었다.

장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물을 관찰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며 내 나관,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그는 어떻게 군단청사에서 나와 유품을 지나쳤는지 풍자해 유품에 대한 생각만 짜들어놓았다.

술한 줄을 불어 가꾼 수유나무, 단나무, 잣나무 등이 빽들어찬 숲에 이르러서야 그는 땀을 흘리며 세 품종이장을 다시 걸쳐보았다.

군단위원장에게는 밤색무늬병은 일명 갈반병이라고도 한다. 수유나무들이 그 병에 걸리면 일파 가지들이 정차 마트면서 쓸모없는 열매가 떨어져 있다.

그런데 최근 수유나무들이 바로 그 병이 발생하였다. 현제까지 병에 걸린 나무들이 비록 몇그루 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퍼지면서 전쟁병도들과 영예군인들을 비롯한 청진군 주민들에게 꽁꽁 말랐던 풍악리를 들판과 보약들은 물론 식료품과 비누생산에도 큰 지장을 줄수 있었다.

생각조차 해볼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날 하였다. 그런데도 군단원들은 여전히 그에 국자아바이라고 따뜻하게 물려주었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담아 누구나

실화

그에게 먼저 인사를 보냈다.

《애국자아, 애국자...》

로인의 주름길은 눈가에 회색의 빛이 비끼웠다. 70여년에 쌓아온 눈을 제때에 처낼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네동으로 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다.

작전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앞에서는 이미 병마도 머리를 수그리는 모양이다. 그의 육체가 벌어나갔다. 늙은이자 물농사였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초계를 자동차에 싣고 양수기를 부리면 중동류의 일이 벌어졌다. 바운드를 끊어버렸다. 봉중에 든 양수기와 함께 물을 기울여 차운 그는 또다시 큰 일을 맡았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물을 끌어올렸다. 판리위원장이었다. 헛跣한 경계로 그는 물을 끌어내고 재빨리 물을 막았다. 그는 양수기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놓았던 것이다.

